

드라마, 중년사랑에 빠지다

태연,日新月异 쇼케이스 개최

6월 후쿠오카 등 4개 투어

소녀시대 태연(본명 김태연·29)이 일본에서 첫 솔로 쇼케이스 투어를 연다.



6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태연은 오는 6월 후쿠오카, 나고야, 도쿄, 오사카 등 4개 도시에서 '태연-재팬(JAPAN) 쇼케이스 투어 2018'을 연다.

예쁜 음색과 가창력이 매력적인 그는 솔로로 '아이(I)', '레인'(Rain), '와이'(Why), '일레븐 일레븐'(11 : 11), '파인'(Fine) 등의 히트곡을 내며 '믿고 듣는 보컬'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낸 신곡 '디스 크리스마스'(This Christmas)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공연 티켓은 태연의 신곡과 새로운 모습을 담은 스페셜 패키지 CD로 구성됐다.

태연은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오티즘 락스 아레나(Autism Rocks Arena)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6 인(in) 두바이'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키스 먼저 할까요



우리가 만난 기적

첫사랑도 아니고 늦사랑도 아니다. 청춘도 아니지만 중년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하다.

TV 드라마가 잇따라 30~40대에 찾아온 두번째 사랑을 진하게 그리고 있다. 딱히 불륜은 아니다. '돌싱'의 사랑이기도 하고 식었던 사람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도 한다. 또, 죽음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로 인해 판타지든 코미디든 감성선을 깊이 있게 따라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멜로의 등장엔 TV 시청층의 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과 청춘스타 캐스팅이 안돼 나오는 기획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 어느날 노크한 두번째 사랑...죽음과 함께 극성 배가
MBC TV 수목극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와 SBS TV 월화극 '키스 먼저 할까요'는 죽음 앞에서 만나는 사랑을 그린다. 노년의 죽음이 아니라 한창 나이인 30~40대에 찾아온 죽음은 당연히 극성을 배가하고 신피자수를 높인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의 주인공 남현주(한혜진 분)는 38세의 뇌종양 시한부 환자다. 초등학생 딸이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드라마는 그가 시한부를 선고받은 후 사력을 다해 남편을 밀쳐내고 애써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쫓아간다. 홀로 남겨질 남편에게는 죽음에 앞서 이혼을 통해 '한발 앞선 자유'를 선사하고, 자신은 죽기 전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다.

제작진은 기획의도에서 "대부분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주부들, 중년 여성들에게 만일 석달 밖에 살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남편이 아닌 그 누군가와 진짜 맛있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재회한 첫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남현주의 남편 김도영(윤상현)과 뇌종양으로 아내를 잃은 뒤 뇌종양 환자 살리기에 매진하는 남현주의 주치의 장석준(김태훈)을 통해 40대 남성의 사랑도 조명한다.

'키스 먼저 할까요'는 사교로 딸을 잃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손 꼭 잡고...' '키스 먼저...' '...기적' 등 죽음 앞에서 만난 사랑으로 절절함 더해

어른들의 멜로 '19금' 자연스럽게 표현

청춘스타 부족에 30~40대 멜로로 변화

안순진(김선아)과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손무한(김우성)이 운명적으로 엮이는 이야기다. 내일모레면 오십인 이들은 사랑이 메마른 지 오래지만 서로를 만나 첫번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와 경로의 두번째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손무한이 말기암 환자이고 살 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설정이 이들 갖 결혼한 '재혼부부'의 발목을 잡는다.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랑의 감정을 끄집어내고, 각자의 깊은 상처를 위로할 상대를 어렵게 만났지만 죽음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19금 코미디'였던 드라마는 절절한 로맨스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안순진의 전 남편, 손무한의 전 부인이 이란란히 연적 아닌 연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혼은 했지만 자식으로 엮인 이들 40대 남녀는 칼로 물을 베는 듯한 관계. 네 남녀가 느끼는 저마다의 두번째 사랑에 드라마는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KBS 2TV 월화극 '우리가 만난 기적'은 죽어서야 깨닫는 두번째 사랑을 코믹 판타지로 조명한다.

소원도 부부로 살아왔던 송현철A(김영민)~선혜진(김현주) 부부는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반전을 만난다. 동명인인 송현철A와 송현철B(고창석)가 한낱한시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저승사자의 착오로 송현철B의 영혼이 송현철A의 몸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경제적 자립과 함께 차곡차곡 이혼을 준비하던 선혜진은 사고 후 180도 돌변한 남편으로 인해 헛갈리게 시작했다. 거만하고 차가우며 외도를 일삼았던 남편이 갑자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다

정다감하고 순박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선혜진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남편에게 묘하게 흔들린다.

이밖에 지난달 끝난 JTBC '미스티'는 30~40대 부부의 치정 스타릴러를 그리며 관심을 모았다.

고혜란(김남주)-김태욱(지진희) 부부는 5년간의 위기 끝 뒤늦게 다시 사랑을 확인했지만 그 직후 김태욱이 모든 과오를 안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었다.

◇ 캐스팅의 어려움? 시청층의 노화?
'미스티'의 제인 작가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고, 그렇게 밀고 나갔다. 하지만 30~40대 부부의 이야기를 방송사들이 그리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멜로라도 방송사들은 청춘의 사랑 이야기에 우선 손을 들어준다. 한류 콘텐츠로서 수출에도 용이하고 대중적으로도 화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스티'가 결과적으로는 성공했고, 주인공 김남주도 보란 듯이 존재감을 과시하며 40대 여배우의 팽팽한 매력을 증명했지만 사실이 드라마가 편성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춘 멜로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키스 먼저 할까요'도 '사랑을 해본 어른들의 멜로'를 표방하고 초반에는 '19금'을 오갈 정도로 농도 짙은 농담을 던지며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화제성이 떨어진다든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청춘 스타들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면 더 화제를 모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드라마 PD는 "사실 청춘스타 캐스팅이 안돼서 30~40대 멜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되는 캐스팅에 애를 먹으니 아예 나이대를 높은 이야기를 하자 싶은 것"이라고 토론했다.

또한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한번쯤 위기가 찾아올 만한 시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 인물들의 감성선이 깊게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풋사랑의 설렘은 화사해서 예쁘지만 공중에 한발 떠 있다. 반면, 인생을 짊어진 두번째 사랑은 착착하고 때로는 추레할 수도 있지만 땅을 단단히 밟은 채 마음을 꼭 누른다. /연합뉴스

영화 '곤지암' 200만 흥행질주

한국 공포영화 흥행 순위 3위

영화 '곤지암'이 개봉 11일째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공포영화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곤지암'은 전날 22만6천621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수 207만2천769명을 기록했다.

이런 성적은 역대 한국 공포영화 최고 흥행작 '장화, 홍련'(누적 관객 수 약 315만 명), '폰'(약 220만 명)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곤지암'은 지난달 28일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달 5일 개봉한 '바람 바람 바람'에 밀려 잠시 2위로 내려앉았으나, 이번 주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체형공포'라는 컨셉트가 1020 세대들에게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며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범식 감독의 '곤지암'은 이달 20~28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리는 제20회 우디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⑥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18 마스터스 골프
⑦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00 SBS 뉴스 10 2018 마스터스 골프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0 해피 시스터즈
⑨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재)	00 우리가 만난 기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위대한 유혹자(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장인, 아트 오브 디데이
①	00 넷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빛고를 행복아카데미(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헬로키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재)	55 닥터 365
②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10 좌충우돌 만국유림기	00 뉴스브리핑
③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④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뉴스콘서트	00 토크콘서트 화통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릴하는 남자들 (재)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⑦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환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⑧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전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⑨	00 KBS 뉴스9			
⑩	00 가요무대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⑪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10 안병하세요	10 가요베스트	10 통상이용 2 너는 내운명 1~2부
⑫	3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출전국 빅매치 <스웨덴 : 칠레>	30 나이트라인

EBS1		4월 9일 (음 2월 24일 辛未)
05:00 왕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파프리카
05:30 세계건물록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들 찾아서 -1부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	09:40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25 그림 그렐러 루이 일본영화(기행 1부)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00 냉장고 나라, 코로롱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15 융감한 소생자 라이
07:00 플라워링 하트	<소고기 채소전골과 연어구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30 로보카 폴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덩동댕 유치원 1~2(재)
07:45 출동! 슈퍼워스2	12:00 EBS 정오 뉴스	17:15 로보카 폴리
08:00 덩동댕 유치원 1~2	12:00 극한직업 스페셜	17:30 마사와 골
08:30 허영선시 과학쇼	13:00 다큐 오늘	17:45 띠띠뽀 띠띠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니~4
09:00 콘서트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9:00 스파이더맨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4:30 똑똑맨	19:30 EBS 뉴스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9일 (음 2월 24일 辛未)
子 36년생 적절한 응동성은 윤활유 역할을 하리라. 48년생 선후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60년생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 72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84년생 유리한 쪽으로만 착각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2, 00	午 42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이다. 54년생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66년생 발버둥치면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리라. 78년생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90년생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5, 54
丑 37년생 차이로 인한 변화가 크다. 49년생 기준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61년생 순간적인 오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73년생 건너뛰었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85년생 쉽게 보고 넘버한다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81, 90	未 43년생 오류가 보이니 신속히 바로 잡자. 55년생 김홍이 흔재하니 범심해서 아니 되니라. 67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79년생 예매한 부분도 있다. 91년생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4, 10
寅 38년생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옳다. 50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해결된다. 62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74년생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완벽을 꾀하려다가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형편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71	申 44년생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처리하라. 56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두루두루 잘 살펴야겠다. 68년생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80년생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라. 92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3, 12
卯 39년생 행운의 그림자가 비친다. 51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63년생 합리성과 능률적인 면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5년생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87년생 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8, 40	酉 45년생 순한 하루가 될 것이다. 57년생 따라 줘야 할 형국이다. 69년생 분수를 지키면 흥사를 비껴갈 수 있다. 81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생산적인 모양새를 도모하는데 일조하리라. 93년생 확실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9, 77
辰 40년생 이익은 적고 할 일은 많았다. 52년생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롭겠다. 64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76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까 아님을 알라. 88년생 신중해야만 정확히 대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6, 95	戌 34년생 긴요한 볼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46년생 반드시 걸음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니라. 58년생 양 쪽편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한다. 70년생 숨은 재주로 인한 이익이 따르리라. 82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72, 50
巳 41년생 옳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53년생 앞에 걸릴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65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라. 77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89년생 목표에 성공성큼 접근하고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18, 52	亥 35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47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59년생 암운이 퍼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71년생 마무리 할 수 있는 계책이 절실하다. 83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겠다. 행운의 숫자 : 25, 43